

“저탄소 철강 개발, 수요확대 위해 글로벌 협력 확대해야”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호주 세계철강협회 정기회의 방문
철강사업 경쟁력 강화 방향 모색

광물·에너지 넘어 미래 분야에
韓-호주 간 산업협력 확대 주력

“글로벌 철강사들이 다양한 탄소 저감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저탄소 철강생산 공정 개발과 탄소저감 및 미래 수요확대를 위해 글로벌 철강사들의 협업을 확대해야 한다.”

10일 포스코홀딩스에 따르면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지난 7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worldsteel) 집행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저탄소 공정 분야에서 협회 차원의 글로벌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장 회장은 세계철강협회 상반기 정기회의에 사흘간 방문해 철강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장인화(가운데) 포스코그룹 회장이 9일(현지시간) 호주 퀸즐랜드주 세넥스에너지 가스전 현장을 찾아 사업을 점검하고 있다. /포스코그룹

장 회장은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자격으로 광물과 에너지를 넘어 미래 산업 분야까지 양국 간 산업 협력을 넓히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포스코는 이를 기반으로 호주 현지 자원 생산능력 확장과 국내 LNG(액화천연가스)터

미널 증설을 추진하며 에너지 사업 기반 강화에 나서는 중이다.

앞서 장 회장은 지난 3월 20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 사업계획으로 호주 내 우량 자원 확보, 신규 가동 법인의 조업 안정화 조기 달성 등을 언급

한 바 있다. 이번 출장도 사업 실행 과정 중 하나로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실질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그는 세계철강협회 집행위원회에서 한국 철강업체를 대표해 탄소감축 등 세계 철강업체가 직면한 주요 현안과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장 회장은 ▲저탄소 공정의 환경개선 효과 ▲탄소배출량 측정기준의 글로벌 표준화 등 이번 집행위원회의 핵심 안건에 대해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아울러 불확실한 글로벌 철강산업 환경을 타개하고 사업 합작과 기술개발 협력을 위해 글로벌 철강사 CEO들과 회동하며 새로운 기회도 모색했다. 그는 인도 JSW스틸 자얀트 아차리아 사장과 일관제철소 합작사업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으며 중국 하강그룹 리우지엔 동사장과는 현재 운영 중인 중국 내 합작사업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세계철강협회 회원사 회의에서 포스코는 4년 연속 지속가능성 최우수 멤버에 선정됐다. 이번 수상으로 포스코는 글로벌 철강업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 선도기업으로서 다시 한번 입지를 공고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어 장 회장은 호주 퀸즐랜드주에 소재한 세넥스에너지 가스전 현장을 방문했다. 세넥스에너지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난 2022년 4억4242만호주달러(약 4000억원)에 인수한 포스코그룹 천연가스 사업의 업스트림에 해당하는 육상 가스전이다.

현재 세넥스에너지는 천연가스 생산량을 연산 20PJ(페타줄)에서 오는 2026년 60PJ(LNG 환산 약 120만 톤 규모)로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증산 개발이 완료되면 동호주 지역 천연가스 내수 수요의 10%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K-배터리, 美 투자·기술개발... 캐즘 회복 대비태세

LG엔솔 등 국내 배터리 3사

1~2월 글로벌 점유율 5.5%p 하락
유럽·북미시장 수요 감소가 원인
캐즘 극복 '불투명' 비관 전망에도
원통형 '46파이' 양산 등 전략 강화

전기차 캐즘(수요정체) 극복 시기로 거론되던 시점이 거듭 밀려나고 있다. 국내 주요 배터리사들의 글로벌 점유율도 하락세를 보이는 실정이다. 업계는 미국 현지 생산기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나 국내 공장 가동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내수 기반이 점차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지난 1~2월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5.5%포인트 하락한 17.7%로 집계됐다.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수요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전기차 시장이 캐즘에 본격 접어들었던 2023년 무렵 배터리사의 수장들은 2024년까지 업황이 불안정할 것으로 보면서도 이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캐즘 극복 시점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 /LG에너지솔루션

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 밀리고 있는 분위기다. 지동섭 SK온 전 대표이사도 당시 “단기적으로 2024년까지 출렁임이 있을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성장세는 꾸준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마주한 지금까지 업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같은 해 증권사에서도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사업 수익성이 개선되면 판매 물량 증가를 통해 캐즘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유럽을 중심으로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면서 글로벌 배터리 업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으며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 하락 역시 여전

한 고민거리로 남아 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수출·내수 합계 매출 또한 지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의 매출액은 25조 6195억원으로 전년(33조 7454억원) 대비 24% 감소했다. 삼성SDI 배터리 부문 매출도 지난해 15조 6912억원으로 전년(20조 4061억원) 보다 23% 줄었다. SK온의 지난해 매출실적은 6조 2666억원으로 전년(12조 8972억원) 대비 51% 줄며 절반 이상 떨어졌다.

업계는 수익성 방어를 위해 미국 내 생산기지를 확보하며 현지화 전략을 펼치고 있으나 국내 생산 기반 공장의 가동률 위축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따른다. LG에너지솔루션의 지난해 평균 공장가동률은 57.8%로 2022년 73.6%였던 가동률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하락했다. 삼성SDI 배터리 부문 공장가동률은 2022년 84%에서 지난해 58%로 집계됐다. SK온의 지난해 평균 가동률은 43.8%로 2022년 86.8%에서 절반 이하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각사 CEO들은 캐즘 극복 시점을 하반기로 내다보며 점진적인 회복을 기대하는 분위기

다. 그럼에도 해외 시장 불확실성과 수요 회복 지연 등 변동성이 큰 만큼 업계 안팎에서는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지난 3월 ‘인터배터리 2025’ 행사에서 “1분기 혹은 상반기 업황이 저점을 찍고 하반기부터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주선 삼성SDI 대표도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부터 (업황이)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배터리업계는 캐즘 장기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신제품과 신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며 시장 회복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은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46파이’ 양산으로 앞서나간다는 전략을 강화하는 데 한창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은 각국의 연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강화, 신차 출시, 주행거리 개선 등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할 것”이라며 “배터리 산업 자체가 해외 시장에 맞춰 글로벌화된 구조이긴 하지만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대통령 탄핵 불구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중” 기재부, 아세안+3 회의

한국은 최근 개최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서 전 세계적 불확실성 속에서 역내 경제·금융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측은 또 대통령 파면 전후로도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각국에 설명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8~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 우리 측은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했다.

최 관리관은 글로벌 불확실성하에서 역내 경제·금융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최근 한국의 상황과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대통령 탄핵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새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두 달의 기간 동안 미국 관세부과 영향 점검 및 피해업종 지원, ‘필수 추경’ 편성 추진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국 참석자들은 5월에 열릴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준비를 위해 역내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 금융협력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또 최근 경제 상황 관련해 아세안+3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와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이 경제 동향·전망과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발표했다.

역내 경제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 글로벌 금융 긴축 등으로 하방 리스크도 높은 상황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각국의 재정·통화 정책 협력 활용, 수출 다변화 노력, 미래에 대비한 디지털 전환 촉진 등을 제안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기업 승계부담 완화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제안

대한상의 “주식 처분시점에 세금부과
기업이 계속운영 가능 하도록 해야”

최근 국회에서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경제계가 기업승계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결합 방식’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 제안’을 통해 “기업 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승

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해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결합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높은 최고세율(50%)과 최대주주 할증평가(20%)로 인해 전세계에서 기업 승계가 가장 어려운 나라로 꼽힌다. 세부담이 많다 보니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되고 투자·성장약화, 주주환원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이 저하되

고 있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4개국에 달하고,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국가는 캐나다,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 등이 있다.

대한상의는 기업승계 부담 개선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형태로 3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첫째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최고 30%의 상속세를 적용하고 이후 주식 매각 시점에 20%의 자본이득세를 주

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둘째 부동산, 채권 등 경영권과 무관한 재산에는 현행 상속세(최고세율 50%)를 적용하고,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에는 자본이득세(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셋째 전체 상속재산 중 기준금액 이하분은 현행 상속세를 적용하고 초과분은 자본이득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대한상의의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국민 일자리의 창출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중소기업에 국한된 현행 기업상속공제 제도를 넘어 전반적인 기업 승계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